

순천 문화유산야행 아름다운 여름밤 여정 ‘성료’

관람객 4만8000여명 방문
의미·감동 담은 기념식부터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구성
“유산에 대한 가치 전달돼”

순천 문화유산야행이 4만8000여명의 방문 속에서 아름다운 여름밤의 여정을 마쳤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천 향동(선비마을)과 매곡동(선교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2024 순천 문화유산 야행’에 4만8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문화유산야행은 기존의 팔마비~순천향교 구간을 넘어 매산동 일원까지 확장해 선현들이 남긴 전통문화유산과 100년 전 선교사들이 남긴 근대 의료, 교육, 선교 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차별화된 시도를 선보였다.

총 15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건축과 유산의 의미를 담아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또 건축과 문화유산, 정원을 주제로 3가지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야행의 하이라이트는 100년 만에 민간에게 개방된 매산동선교마을에 대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천 향동(선비마을)과 매곡동(선교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야행’에 4만8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순천시 제공.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 공연이었다.

공연은 고라복(코잇) 선교사를 화자로 해 조선의 사람들과 만나는 독백으로 시작됐으며, 100년의 세월이 담긴 선교, 의료, 교육의 발자취를 보여줬다.

매산동 일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근대

유산의 가치를 낭독 퍼포먼스, 영상, 오케스트라 앙상블, 레이저 아트, 설치 미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공연을 본 한 시민은 “여러 야행을 체험했지만 이렇게 뜻깊고 가슴에 울림을 전하는 기념식은 처음이다”며 “우리 유산에

대한 가치와 감동이 동시에 전달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야행은 오히려 방학기간 동안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겨냥한 핏색 포인트가 됐다. 인기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객들이 스스로 휴대

전화번호를 적으며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화유산야행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사장 내 푸드트럭은 연일 준비한 물량을 소진했고, 인근 카페와 식당들도 오후 10시까지 불을 끄지 않고 영업했다. 행사장 내 푸드트럭은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음료는 판매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문화유산야행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돋보였다.

순천소방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고, 향동과 매곡동 지역 주민들은 보조인력으로 참여해 야행의 밤을 함께 밝혔다.

순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문화유산 돌봄센터, 순천 매산고, 매산여고, 매산중, 순천향교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순천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교육 만날강좌

(재)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이 오는 23일까지 시민문화예술교육 만날강좌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음악, 미술, 무용, 기타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반 2강좌, 성인반 10강좌 총 12개 강좌가 개설된다.

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만날강좌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만날강좌 하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현장 ‘대표 관광지 사진’ 전시

순천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시지부(지부장 김동욱)와 협업해 신청사 건립부지 가설울타리에 순천 대표 관광지 사진을 전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맛있는 가설울타리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시지부가 제공한 순천 대표 관광지 사진 51점을 전시해 어둡고 허전한 공사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순천 대표 관광지 사진과 함께 신청사 준공 후 조감도를 게재해 시민들이 신청사의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임시주차장(중앙 2길)까지 이어지는 약 210m의 가설울타리에는 외곽에서부터 도심으로 들어와 신청사를 둘러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까지의 여행 필름을 일러스트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 속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보는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순천만국가정원의 ‘스페이스 브릿지’와 EBS 인기 애니메이션인 ‘두다다쿵’ 캐릭터를 벽화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년몰’ 청춘창고 신규 입점자 추가 모집

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청춘창고 신규입점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식음료 3개 점포와 공예·체험 등 2개 점포 등 총 5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입점해 있는 점포와 중복되지 않는 메뉴 및 상품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 시 계약기간은 1년이다.

청춘창고 입점 신청자격은 창업이냐에 관계없는 길인자 공금한 청년, 창업을 경험해 보고 싶은 청년, 창업 초반은 어떻게 꾸

려나갈지 걱정되는 청년 등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45세 이하의 모든 청년이다. 청춘창고 입점자로 선정되면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초기 부담도 덜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www.suncheon.go.kr)을 통해 확인,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61-749-5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6일 순천시민들이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순천시 제공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 성료

‘순천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가 지난 16일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산책객이 많은 동천변에서 남파랑길 순천 구간을 홍보하여 걷기에 관심을 가

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 코스는 그린아일랜드에서 동천을 따라 남문터까지 이어지는 3.8km로 어린이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가족단위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도착지점이 지역 축제 행사장으로

이어져 원도심의 화려한 야간행사도 즐길 수 있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걷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코스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걷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용오름농촌체험휴양마을서 글로벌 캠프 운영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순천용오름농촌체험마을(주암면 운룡리 소재)에서 국내외 대학생 16명과 주암면 소재 초등학교 12명이 함께한 ‘2024 농촌체험마을과 함께하는 글로벌 캠프’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캠프는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교육 및 문화

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게임과 수학을 접목해 재미를 느끼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학 특강과 다양한 국가의 전통놀이와 음식, 문화 등 다양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농촌 학생들

의 멘토로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했고 캠프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국적의 유학생 6명은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전수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주암면 운룡계곡 등 시 주요 관광자원을 탐방하고 운룡마을 소득작목인 고추 수확 봉사활동, 울무팔찌 만들기, 고추장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을 실시했다.

순천=배서준 기자